

2013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삼일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생명이심

메시지 9

주님을 감추인 만나와 싹 난 지팡이와 생명의 법으로 누리기 위해 그분을 섬김

성경: 겔 44:10-11, 15-18, 행 13:1-2, 히 9:3-4

- I.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아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겔 44:10-11, 15-16.
- A. 하나님이 보실 때 성소를 섬기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은 사역, 곧 주님을 섬기는 것도 있다.
 - B. 하나님께는 오직 한 목표, 곧 절대적으로 '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가지시는 목표 만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임재 앞에서 '나'를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안에 있다—겔 44:15-16.
 - C.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성소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도 전파하고 형제자매들이 전진하도록 돕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한 목표는 주님을 위한 이들이 되는 것이며 그들의 초점은 주님 자신이다. 그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보배롭게 여긴다.
 - D. 만일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 오직 그분께만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들도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섬기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시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 E. 주님의 봉사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주님의 만족과 주님의 마음의 갈망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목표와 주님의 즐거움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F. 주님의 일 안에 우리의 육체에 호소하고 매혹적인 분야들이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오직 우리의 자아의 즐거움과 영광을 위하기 때문이다—비교 고후 4:5.
 - G. 기도 안에서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섬길 수 없다. 영적인 능력은 전파하는 능력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능력에 있다.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는가가 우리가 참되게 소유한 내적인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다.
 - H. 만일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가야 하고 그분 앞에서 있어야 하며 그분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
 - I.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겔 44:15). 그것은 주제넘은 죄(시 19:13)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 J.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주님께 기름과 피를 드려야 했다—겔 44:15.
 - 1. 제물의 기름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보배로움을 예표하는 반면에 피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상징한다.
 - 2.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둘을 모두 그분께 드려야 한다. 피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위한 것이며 기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K.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양털 옷이나 땀이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베 옷을 입어야 했다—겔 44:17-18.

1. 가는 베 옷은 생명 주시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한 매일의 생활과 행함을 상징한다. 그러한 생활과 행함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다.
2. 양털 옷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자기 자신의 에너지와 힘에 의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타락한 사람의 수고(창 3:19)를 상징하는 땀(겔 44:18)을 흘리게 한다.
3. 땀을 흘리게 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없는 사람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일이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땀을 흘리게 하지 않는 일, 곧 사람의 노력이나 육체적인 힘으로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
4.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합당하게 그분을 대한다면 사람 앞에서 땀을 흘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일을 성취할 수 있다.

L. “안디옥에 있는 교회,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신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행 13:1-2.

1. 이것이 신약에 속한 일이며 신약의 일을 위한 유일한 원칙이다—성령의 일은 오직 주님을 섬길 때에만 계시될 수 있다.
2. 오직 주님을 섬길 때에만 성령께서 몇 사람을 보내실 수 있게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3.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깥에 있는 모든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깥의 모든 일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4.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기초하지 않은 우리의 갈망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나간다.

II. “둘째 휘장 뒤에는 다른 한 칸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곳 … 지성소는 금향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사를 담은 금 향아리와 이룬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히 9:3-4.

A. 감추인 만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없을 때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몫이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거리가 없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장 친밀하고 감추인 방식으로 누린다. 이것이 감추인 만나, 곧 그리스도의 감추인 몫을 누리는 것이다—출 16:31-36.

1. 버가모 교회의 상태를 이기려면 오늘날의 기독교에 속한 일반적인 실행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하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은 누구도 맞볼 수 없는 그리스도께 속한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다—계 2:17.
2. 만일 우리가 감추인 만사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결코 간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는 모든 간격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3.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감추인 만나로 누릴 때, 우리는 그분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가지며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도를 알게 된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분부를 받고 그분의 의도와 그분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4.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임을 받게 될 것이다.

B. 싹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과 부활 생명이 되셔야 한다는 것과 이 생명이 성숙에 이르도록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민 17:8.

1. 민수기 16 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거역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열두 명의 인도자들에게 열두 지팡이를 거두어 회막 안의 증거궤 앞에 두라고 명령하셨다. 그 후에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민 17:5.

2. 열두 지팡이들 모두 잎이 없고 뿌리가 없고 마르고 죽어 있었다. 그 중에서 싹이 난 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이며 봉사의 근거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싹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안에 있는 권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다.
3. 모든 봉사에 대한 원칙은 싹난 지팡이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열한 지팡이들은 인도자들에게 돌려 보내시고 아론의 지팡이만 증거궤 안에 영원한 기념으로 남겨 두셨다. 이것은 부활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 안에서의 영원한 원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민 17:9-10.
 - a. 부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b. 부활은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다. 그들은 자신이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안다.
 - c. 타고난 힘이 남아 있는 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터가 없다.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한 이삭은 나올 수 없다—창 18:10-15, 21:1-3, 6-7.
 - d.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타고난 영역에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부활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끝에 이르러야 자신이 완전히 쓸모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마 19:26, 막 10:27, 눅 18:27.
 - e. 사람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부활은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비교 고후 1:8-9, 4:7.
- C. 율법의 돌판인 언약의 돌판은 신성한 생명의 법, 곧 신성한 생명의 자연스러운 능력, 자동적인 기능, 타고난 역량, 신성한 능력을 상징한다—렘 31:33, 히 8:10, 비교 롬 8:10, 6, 11, 10:12-13:
 1. 생명의 법, 곧 이러한 신성한 역량은 하나님의 경륜의 수행을 위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 a. 이 역량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으로 조성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표현을 위한 그분의 증가와 그분의 확대와 그분의 충만이 되기 위한 것이다—엡 1:22-23, 3:19-21.
 - b. 더 나아가, 생명의 내적인 법의 역량은 우리를 온갖 기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조성한다—엡 4:11, 16.
 2.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동안, 생명의 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형태를 이루고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는 기능을 한다—롬 8:2, 29.
 - a. 생명의 법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 생명의 법은 생명의 형태를 규제한다.
 - b. 생명의 법의 주된 기능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부정적인 의미에 있지 않다. 오히려 생명의 법의 기능은 우리의 형태를 이루는 긍정적인 면,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에 있다.
 - c. 생명의 영의 법의 기능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우주적인 표현을 갖게 되실 것이다.